

예술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다

오늘부터 전주 기린미술관서 정혜윤 한국화 개인전 개최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제1회 정혜윤 한국화 개인전을 개최한다. 정혜윤 작가는 이번에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을 졸업하는 새내기 작가이다. 예술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번 작품전은 '기억과 향수(memory/nostalgia)'를 주제로 삼아 일상의 감정과 관계, 개인의 모든 영역들, 환경, 도시, 건축, 공간부터 내적이고 심리적인 상황과 이미지의 문제들을 탐구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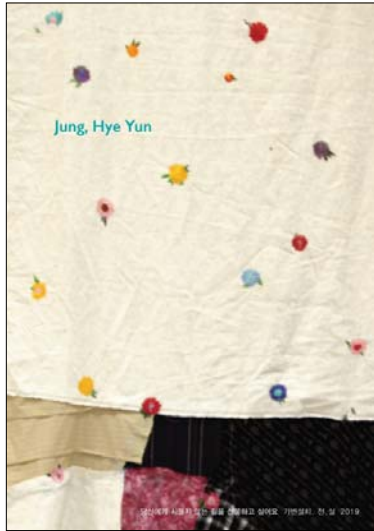
정혜윤 작가는 "나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게 꼭 나 같기에 사소하고 무관심해지는 것들, 소중했다가도 낡고 버려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존재 그 자체를 발견해내고 싶다. 또 그 발견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재 또는 과거의 모든 존재에 불을 던지고 싶다. 내 작업에서 기억과 향수는 사물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 속에서 구겨지고 실체를 불이고 달래거나 구멍을 내기도 하며 '버려진' 것을 '또 다른 탄생' 자체의 정체성으로 재해석(발견)해 이미 끝나 지나 버린 누군가의 모든 잔해와 흔적을 또 다른 향수로 삼기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작품전의 재료기법에 있어서는 설치와 평면으로 나오며 버려진 사물의 이미지 또는

버려진 기성품을 주워와 천을 달래거나 구멍을 내 바느질하며 버려져 끝나버린 '타인'의 기억과 흔적을 가변시켜 계속되는 존재 또 다른 발견된 물체(found objects)로 만드는 것이다. 또 구멍 난 양말에 바느질, 단추가 다르게 꿰매진 셔츠 등을 액자에 넣어 나의 기억을 미술관의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을 패러디해 일상의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이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나에게 있어 바느질은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일련의 행위로서 엄마를 상기시키며 구멍 난 것에 천을 달래며 마음의 구멍을 새롭게 하며 지나치고 사라지는 기억들을 또 다른 것으로 보이게 발견하여 마음의 빈 곳에 향수를 가져다준다. 여러 겹으로 겹쳐서 엉망으로 바느질되거나 제대로 마감 처리되지 않은 실밥의 튀어나온 흔적들은 지나온 시간의 고통과 왜곡되는 무수한 이야기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작가는 "나는 '사소한(trivial)'이라는 일상적인 요소가 갖는 불친절함과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꿔내고 싶다. 당신 안의 가능성을 사소함에 묻혀 상실시키지 마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재생산해 발견해나기를 바란다. 당신이 지나쳐온 이전의 모든 것들이 지금의 개인과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한 인간이 매 순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의 무한함을 얘기해 주고 싶다. 누군가의 어느 하루 그 순간의 것을 발견해 내고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 '향수(nostalgia)'라는 건 어느 순간에도 그것이 기쁨이던 고통이던 인간 삶의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내며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고 작가의 변을 적고 있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 '백제유민의 일본이주와 정착' 학술대회 개최

부안군은 오는 29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백제유민의 일본이주와 정착'이라는 주제로 한국고대학회(회장 하문식)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삼국시대 백강전투와 주류성, 그리고 부안의 21세기적 문화비전(201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동아시아적 관점의 백제부흥전쟁과 주류성(2018년)' 등의 학술대회를 통해 백제부흥전쟁의 중심지인 주류성(우금산성), 백강(동진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류성 위치와 백강에 대한 연구 완성도를 높이고 패망한 백제유민과 일본 간의 관계 조명을 통해 대외적으로 주류성 위치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다. 학술대회는 연민수 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소장의 '왜왕권의 백제유민 관리와 인제 등용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나카 도시야키 일본 시가협회 명예교수의 '백제유민의 일본 정착에 대한 일본 고대사학계의 연구동향', 야

쓰무라 순지 일본 카시와라시립역사자료관 관장의 '백제유민의 정착역사와 특성-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홍성화(건국대)씨의 '백제유민의 시가, 나라지역 정착역사', 오다케 히로유키 일본 전 히라카타시 교육위원회의 '백제시대 백제왕신사의 역사적 의미와 최근 고고학적 성과', 송완범(고려대)씨의 '백제유민과 일본 율령국가' 등 다각도의 연구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학술발표 이후 조법종(우석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재운(공주대)·이근우(부경대)·나행주(건국대)·정순일(고려대)·서정석(공주대)·김은정(충남대)씨 등 학계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류성에서의 백제부흥전쟁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얽혀있는 한일관계의 출발점이 부안에서 시작했으며 이를 역사적으로 집중 조명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부안의 새로운 길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벽골미술대전서 장수문화원 민화반 수강생 전원 입상

이윤경 씨 · 안옥순 씨 특선 수상 쾌거

(사)한국미술협회 김제지부가 주최한 2019년 제20회 전국벽골미술대전에서 장수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민화반 수강생 9명이 출품, 수강생 전원 입상했다.

이 가운데 이윤경(45)씨의 연화도와 안옥순(50)씨의 일월오봉도가 특선을 수상했고, 형정이, 안귀화, 박경남, 서인애, 방경심, 유영미, 이숙희씨 7명이 입선했다.

문화원에서는 작년 4월부터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민화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현 이선화(55, 완주)작가의 지도로 소화하면서 도 한국적 정서가 묻어나는 민화를 지역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전시와 체험을 통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문화학교 강좌는 해마다 3~4월중 신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1회 2시간씩 6개월 짧은 시간 수업에 참여하면서 미술대전 작품을 함께 준비하여 얻은 결과 그 의미가 더 크다.

권승근 장수문화원장은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 제공과 자기개발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일상의 작은 배움이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지는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전국벽골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김제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시 될 예정이다.



이윤경 씨의 연화도.



안옥순 씨의 일월오봉도.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 '뽐뽐'

국립민속국악원, 30일 국악강좌청출어람 수료식 · 발표회 열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의 수료식 및 수강생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출어람 수강생 100여명이 참여해 1년 동안 강습을 통해 배운 기량을 뽐내며, 초급과정은 대금(아리랑, 도라지타령, 한오백년), 해금(아리랑, 홀로아리랑, 진도아리랑), 가야금(태평가), 판소리(춘향가 중 속대머리), 한국무용(동초수건춤)을 중급과정은 대금산조(서용석류 중 자진모리), 해금(광화문연가), 가야금병창(호남가)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수료식에서는 약 70명의 수강생이 수료증을 받는다.

또한 우수수강생 (8명)에게는 국립민속국악원장이 수여된다.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은 국립민속



지난해 열린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의 수료식 및 수강생 발표회.

국악원의 교육사업 중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고 체험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좌로 매년 수강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